진짜 교회VI-천국스타일

(눅9:57-62)

57.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진짜 교회VI-천국스타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진짜 교회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lifestyle이 천국 style이라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요즘 들어서 아이가 때때로 뜬금없이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엄마를 찾지요, '엄마!' 하면서 뜬금없이 '나는 강릉스타일 ♬' 그래요.
차타고 가다가도 '나는 강릉스타일 ♬', 아무 때나 지 기분에 따라서 '나는 강릉스타일, 강릉스타일 ♬'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저게 도대체 무슨 노래냐고 물었더니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있는 모양이에요, 싸이라는 가수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게 유투브에 올라가면서 클릭 수가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는 동영상도 제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강남스타일'이 뭔가 하고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이유가 강남에 사는 젊은이의 퇴폐적인 측면을 뮤직비디오로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제작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벨기에 같이 작은 나라에서 거의 7, 80만 횟수를 클릭했더라고요.

이렇게 강남에 사는 오빠의 라이프스타일이 강남스타일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로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강남스타일은 강북스타일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스타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뉴욕스타일이 있고, LA style이 있고, 뮌헨스타일이 있고, 파리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말리스타일이 있고 가봉의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나만의 고유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일이라는 말을 써서 구분 짓습니다.
'저 사람 스타일이 좋다!'고 할 때는 그 사람만의 옷차림의 방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천국스타일로 살아갑니다.
천국스타일과 대별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지구스타일일 것입니다.
강남도 강북도 아니고, 뉴욕도 LA도 아니고, 지구스타일이 있고 천국스타일이 있는데, 교회의 삶의 방식이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결단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에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누가는 서기관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누가가 보기에는.

메시지의 핵심을 전함에 있어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좇겠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머리 둘 곳'
휴식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머리를 둔다는 게 쉰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안심하고 안정감을 찾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좇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좇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안정된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사회적인 신분의 기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어깨 펴고 안심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안심하려면 또 어떤 게 있지요?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이 건강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심하며 쉼을 얻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삶의 기반, 예수님을 좇으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서 안정된 기반이라고는 아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원하지 않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고, 평강 속에 머무시며, 언제나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안정된 기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안정된 기반을 찾는 것은 똑같지만, 너의 스타일, 안정된 기반을 찾는 방식에 있어서 너 같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안정된 기반을 이 세상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직업을 필요로 하고, 재정적인 여유를 필요로 하고, 건강을 꼭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만 추구하는 강남스타일이 아닙니다.
강북에 사는 사람도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서울의 강남과 강북뿐 아니라 강릉도 그렇고, 뉴욕도 파리도 뮌헨이나 베를린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중동에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건강과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이나 재정적인 여유 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된 기반 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 예수님을 좇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스타일은 지구스타일입니다.
지구 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거절 아닌 거절을 하고 계실까요?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오리다’
자, 주님은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길은 주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길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도중입니다, 마지막 지점은 승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국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이게 다 길을 내신 겁니다.
인류역사가 아담 이후에 시작된 이래로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없고, 이 길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공자도 노자도 석가도 이 길을 못 가봤고, 소크라테스도 못 가본 이 길, 알렉산더도 뉴턴도 아인슈타인도 못 가본 이 길, 이 길을 주님께서 가시면서 길을 내신 겁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한 이 서기관의 이 갸륵한 결심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거절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길들은 전부 십자가 이쪽 편에 놓여 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쪽에서, 십자가를 통해 죽는 죽음 이전에 지구 위에서의 삶의 안정된 기반을 추구하고 있으니, 네가 나를 따르겠다는 것이 십자가 이전의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기반 구축이 목적이라면, 네가 찾으려고 하는 이 지구 위에서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지구 위에서 안정된 기반을 나는 전혀 찾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안정된 기반을 확보할 때 너희도 나를 따라와서 안정된 기반을 누릴 텐데, 네가 정해놓은 이 지구 내에서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는 나는 안정된 기반을 찾지 않는다.'
요한복음 같은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예수님도 안정된 머리 둘 곳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머리 둘 곳 자체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안심하고 안정되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단지 서기관은 길은 지구 안쪽에서 찾으려 했고 주님은 지구 바깥에 길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빙선수들이 다이빙할 때의 보드를 가만 보면 아찔하게 높은 다이빙대 위로 허공에 널빤지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널빤지 위에서 탄력을 위해서 몇 차례 굴리다가 다이빙 하지 않습니까?
다이빙대에서 허공을 향하여 내뻗은 널빤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신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이 지구 바깥으로 나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합류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합류합니다, 믿음으로 합류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부활한 것이고 내가 승천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세상에 대해서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과 같이 승천해서 내 마음이 보좌 우편에 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의 번제를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아버지와 교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교제에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얻고 안심을 얻고 평강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지구스타일과 구분되는 천국스타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지구 바깥에 있는 천국에서 안심의 기반을 찾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서는 더 이상 안심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돈을 비축해서 노년을 대비하는 대신에 자기 돈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는 유무상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라이프스타일, 교인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안정된 기반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일은 천국으로부터 공급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구 안에서 기반을 확보하고 구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이 지구 안에서 안정된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면,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주를 따르겠다는 말에, 주님께서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제일 처음 현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서부터 이 지구를 바라볼 때, 지구 안의 폐쇄된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죽은 거라는 얘깁니다.
마치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늘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지구 안에서 인간사회 안에서 폐쇄되어서 거기서부터 행동의 이유를 찾아내고, 안정된 기반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삶이 다 죽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다 죽어버린 것처럼 다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스타일의 교회와 교인의 하는 일이 뭡니까?
천국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당장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아버지를 장례 지낸다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당장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죽었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장례 지내고, 예수님께서 이동하셨으면 한 이, 삼일 뒤늦게 예수님 수소문해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일은 내가 가장으로써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얘깁니다.
또 그 다음 사람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마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단도리 시키고, 아내도 안정을 시키고 매듭을 짓고 따르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멋대로 주체가 되어서 살던 상황이 매듭지어졌건 안 지어졌건, 전개되고 있던 상황이 결론이 났건 안 났건 상관없이 상황이 벌여졌으면 벌여진 대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지금 곧바로 십자가의 길로 뛰어들어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매듭짓고 나서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이어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이어 만난 다음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바이어 만난 다음에 가겠다고 해서 그 바이어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돈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지구 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미완성이든 미해결이든 상관없이 지금 곧바로 십자가의 길로 뛰어들어서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머리 둘 곳을 찾고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 내가 도대체 이 지구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구에 있는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는지 천국에서 행동의 이유를 찾아가지고 마음이 이 지구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안정된 기반을 이 지구 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지구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지구스타일은 교회와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인의 삶의 방식 중에서 안정된 기반을 찾는 방식은 천국에서 찾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불안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놔두고, 자식이 잘못 되고 있으면 잘못 된 대로 놔두고, 하여간 이 세상의 상황이 가정문제건 사업문제건 직장문제건 건강문제건 모든 상태를 그대로 놔둔 채로 매듭을 짓지 말고, 곧바로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고, 부활했다고 믿고, 천국 갔다고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서 기어코 천국이 내 마음에 현실감으로 불타오르게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서.
그 천국이 현실감이 된 상태에서 지구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행동해야 될 지침들이 주어지게 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안정된 기반, 내 마음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이 지구 위에서 가정에서의 상황, 직장에서의 상황, 건강의 상태를 가지고 이루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구스타일로는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가서, 서기관으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는 그 길, 십자가를 통해 지구 바깥에 나있는 그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부터 머리 둘 곳을 찾고, 그곳에서 모든 안정감을 다 취하고, 만족과 행복을 취한 뒤에 지구를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교인이요, 천국스타일의 교회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얘깁니다.

이 라이프스타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천국 현실감으로 불타오르는 천국 전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여전히 지구스타일로 살고 있

었던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머리 둘 곳을 천국에서 확보하는, 그것도 지금 당장 확보하는 천국스타일의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